

최저임금 · 미세먼지 대책까지... 삶의 질 향상에 초점

■ 충북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8개 분야 80여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하여 추진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보건 · 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하여 무상급식제도가 기존 초 · 중 ·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 · 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90%)은 폐지된다.
경제 ·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하여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농정 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산업 ·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 오염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문화 · 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새로이 추진한다.
이 밖에 소방 · 안전 분야에서는 전도민이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 · 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경우 여야 1명이 26.2%, 여야 2명이 8.0%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복수응답)으로는 보육료 지원 49.0%, 공교육 역할 증대 36.7%, 여성근로여건 개선 32.6%, 육아휴직 활성화 30.5%, 보육시설 증대 30.1%, 의료비지원 19.4%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73.9%로 2년 전에 비해 6.1%p 증가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육은 21.1%로 2년 전에 비해 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해피베이비박스' 지원, 관내 25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회관 204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어린이집 아동 1명당 간식비를 600원으로 인상하며, 아동급식비 또한, 1식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충주시는 하반기부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억 원 규모 중주상품권 발행, 출생순위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원 확대되며, 산후관리비 50만 원 지원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등 신설된다.
제천시는 3년 이상 주소를 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 다자녀 가정 대상 학자금 · 교복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분만 축하금 40만 원은 폐지된다.
보은군은 관내 중 · 고교생 통학생 대상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 거리가 2km 이내이거나 기술사생은 제외된다. 또한, 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준다. 올 1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전상 · 공상군경, 무공 · 보훈수훈자 매달 10만 원 지원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입학일 기준 부모,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 ·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이 지원되며, 전일 군인과 군무원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증평군은 증명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인상된다.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은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포함)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받는다.
진천군은 군민에 주소를 둔 중 · 고교 신입생은 교복비 30만 원이 지원되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신축 보조금은 1억 원에서 평소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괴산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을 연 3%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군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 받고, 이자는 괴산군이 보전한다.
음성군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을 위해 20곳 업체를 정해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한다.
단양군은 출산축하금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돌 축하금은 첫째 4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에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 넷째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우중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8개 분야 80여개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6면에

《사회복지 예산비교》
1조 725억원
1조 5604억원
2018 2019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2천 12억 원이 증가되었다.

2018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 공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 장애인 분야 72.1%

충북도는 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한 2018년도 사회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28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사회지표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11,604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 가족, 교육, 보건, 환경, 안전 등 7개분야 43개 문항을 조사사업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설문조사한 20,574명의 도민이 응답한 결과이다.
몇 가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양은 가족과 정부 ·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 가족이 30.3%, 부모 스스로가 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자녀를 가꾸어 부부만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8.1%로 3년 전보다 15.1%p 증가했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성별구분없이 2명을 낳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3%, 낳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8.1%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낳을 경우 여야 1명이 26.2%, 여야 2명이 8.0%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복수응답)으로는 보육료 지원 49.0%, 공교육 역할 증대 36.7%, 여성근로여건 개선 32.6%, 육아휴직 활성화 30.5%, 보육시설 증대 30.1%, 의료비지원 19.4%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73.9%로 2년 전에 비해 6.1%p 증가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육은 21.1%로 2년 전에 비해 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던 도민들은 만족 57.0%, 불만족 12.2%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 치료결과 미흡 45.4%, 대기시간이 길다 35.9%, 비싼 의료비 29.9%, 전문 의료인력 부족 24.0%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59.0%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72.1%로 가장 필요한 복지사업(복수응답)이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싶은 경우는 54.4%였으며, 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 공적연금 73.0%, 예금 · 적금 54.5%순으로 많았다.
충북도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만족 의견이 29.3%, 불만족 26.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이유로 경제적 부담 37.3%, 시간부족 34.4% 순으로 나타났다.

43만개 일자리 창출 · 고용률 73% 목표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발표

충북도는 민선7기 함께하는 도민, 일 등경제 중흥 달성을 위해 총 43만개의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3%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내일(My Job)로 행복한 도민!' 내일(Tomorrow)이 희망찬 충북'을 비전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대분야, 151개 실행과제에 2조 4,18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민선7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대 분야로는 고용환경 변화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동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 등이다.
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환경 변화 대응, 53개 실행과제(15만4천여 개 일자리, 1조4944억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84개 실행과제(25만9천여 개

일자리, 8218억원), 노동시장 환경개선, 9개 실행과제(1만6천여 개 일자리, 1017억원), 일자리 거버넌스 재구조화, 5개 실행과제(400여 개 일자리, 11억 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19년 103,200개, 20년 106,600개, 21년 108,800개, 22년 11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실행 과제로는 첫째,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고용까지도 고려한 국내 · 외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청년 · 여성 · 중장년 · 노인 · 사회적경제 등 5개 세부 분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희망센터 조성, 청년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등을 여성 일자리 사업은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을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일자리, 84개 실행과제(25만9천여 개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8개 분야 80여개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6면에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책 8개 분야 80여개를 발표했다.

▶ 관련기사 6면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출판 · 홍보위원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 일동

청주시 “청년 ‘복지 유토피아’ 조성할 것”

충주시, 교통약자 전용콜택시 확대 운행

주거 지원·정장 대여 등... 2023년까지 73개 정책 추진

청주시는 청년 관련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청주시 청년 기본

규정’에 따라 청주복지재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계획을 만들었다.

시는 ‘희망과 행복을 더하는 젊은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청년 행복, 성장, 참여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5대 추가 운영 · 총 19대... 오전 8시~오후9시 운행



충주시가 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발대식을 갖고 있다.

충주시가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충주시가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1~2급 중증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등급자(1~2급)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청주시 독거노인지원센터 본격 운영

방문 건강 관리 · 사고예방 장치 설치 지원

청주시가 상당구 자북동(단지 395)에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해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 돌봄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천,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 확대

배우자에 매월 25일 복지수당 5만원 지급

제천시가 올해부터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5만원씩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회망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

전치태반 · 질박유산 등 추가... 총 11대 질환 보장

진천군이 새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부부령증 등이 추가돼 11대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다.

음성 ‘드림스타트’ 신규 발굴

음성군 드림스타트가 차별 없는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드림스타트 신규 대상 아동 발굴에 나섰다.

다. 평소 시간 ·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의료비 및 부족한 과목 방문학습 지원 등 2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단양군 사회복지대회 및 송년행사를 지난해 12월 27일 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단양, 사회복지대회 송년행사 성료

새해 복지기관 · 단체 네트워크 강화... 선진 복지 다짐

단양군 사회복지대회가 송년행사로 지난 12월 27일 단양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서비스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충주시일자리지원센터, 청년 취업 ‘큰 성과’

총 456개 기업에 1248명 일자리 창출 달성

충주시일자리지원센터가 지난해 어려운 고용여건속에서도 취업 창구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구인을 유도했다.

105개 기업에 429명을 취업시켰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 · 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 겸 주필 김춘길

12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인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점, CJ나눔 계동센터, CJ수원반포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 저은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낙농농협, 나눔축산물본부, 증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나산, (주)대성푸드, 롯데푸드, 체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풀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블어, (주)미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샘플레이스, 청암식품, 리온엘스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새마을푸드뱅크 충남아침요양집,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북대점), 바나나, 충남아침(복대점), 두레주(비하계점), 단인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풀링(지웰시티점), 이초테크 이커리, 금관마트, 동정주유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충남아침(성안점), 충남아침(성동점), 파리바게트(가경대우), 정도너츠, 비로주농, 도당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바시푸드,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상사, 대성우수, 도당, 동고개농장, 제윤우동, 장수우동,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세곡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로 금천지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금관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로 금천지점, 파미에 베이커리, 행복&픽업, 유신빵,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락마, 두레주로 청주용정점, 파리바게트 청주용정점, 영농조합법인 화마을, 송프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정점, 천연영농조합법인, 정수기(후생사), (주)월드이심달이치구, 자연에연결영농조합법인, 천영, 김기에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명, 서울유우치, 시아스유물, 두레주로 분평점, 목형떡과, 금관할인마트 용정점, 청주특대(주), 무에우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트 오창중앙점

- 충청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증평점, 케익하우스, 금호삼분불기, 서신식품, 충남아침 용정점,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인도너츠 증평점, 락리전 증평점, 그린유물, GS25 증평대리점
- 과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점, 신선너트, 신선촌, 운산식품, 재중경약국, 불무원, 서미숙, 유인숙, 정국희, 마에오베이커리, 두레주로과산점, 파리바게트과산점, 마크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서베이커리
- 옥천푸드뱅크 두레주로 엘리트점, 구가네 능이보급, 조마루 김치장, 독도기든, 현오목, 이가(한성사), 이가회로, 옥천향당리다리점, (주)한일푸드
- 영동농부푸드뱅크 두레주(김홍욱), (주)베틀유과공
- 보은기초푸드뱅크 (T. 643-6255) 서울유유(보은점), (주)서울형로,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추주, 대전, 오묘,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산형농정,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인도너츠(금왕), (주)가자연면, (주)후드원, 김정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물, (주)봄유물, (주)맑은식품
- 진천기초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성모병원점), 면사당, 세리부,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점), 삼우유물, 파리바게트(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초푸드뱅크 퍼리바게트 진천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을만두편, 김수향, 옥천향당리다리점, (주)한일푸드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물식품, 대하유물, 락리전충주교현점, 락보

- 이와 함께 한국교통대 창업지원단과 일반인 실천창업 강좌,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취업지원센터와 지역인재 충주정착을 위한 우수기업 탐방 등을 추진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섰다.
- 이외에도 취업박람회, 일구데이, 채용 대행서비스, 동행 면접 등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 청년과 중장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을 실시해 2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시는 올해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청년-충주기업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청년 인제 정착을 위한 대학생 충주기업 현장실습 및 탐방, 찾아가는 기업 특강(취업설명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와 지역인재 충주정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한다.
-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웃 기부천사들... '착한거리' 탄생

'매월 기부' 영동 황간면 42개 사업장 한 곳에 모여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가게가 모인 '착한 거리'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군에 따르면, '황간면 착한거리'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해주는 '착한거리 충북1호'로 지정돼, 박세복 군수 등 관계자, 정치가, 협의회위원, 복지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착한 거리'란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황간면이 충북 1호의 영예를 안았다. 따뜻한 복지향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착한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의 상가, 기업체, 농장,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영동군 황간면에서 '충북1호 착한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와이너리 등 42개소 대표들이 적극 동참한 값진 결실이다. 충북공동모금회와 황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기부사업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은 황간면 전용후원계좌로 정기기부금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복지사업의 든든한 재원을 만들고 있다. 민민들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간면 착한거리'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착한가게 대표 42명에게 황간면 관내 복지이장단과 기관단체장들이 감사의 인사와 격려도 이어지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로써 황간면민들은 문뜰영동군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민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의 정성에 맞게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보살피는데 적극 사용하고 나눔문화를 실현하는 모범마을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김오봉 위원장은 "기부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꼈고 3만 원을 선포식 기부에 주는 착한가게 42개소 사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시민이 직접 나선다

영동읍 행복센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70명 위촉

영동읍 행복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11일 밝힌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70명을 위촉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등의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라 좀 더 총괄한 안전망을 구성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적 안전망이다.

영동읍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은 복지이장 32명과 새마을 부녀회원 33명, 위기 가구 발굴에 관심이 있는 주민 5명 등 모두 70명으로 구성됐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이

웃 가까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치윤 영동읍장은 "읍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구성구색 이웃을 살펴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능나눔으로 '더 살기 좋은 농촌'

농림부 자원 사업 공모 증평·진천·괴산·음성 선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재능이 모여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9년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사업'에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4개 군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

촌 재능 나눔 프로그램 발굴·지원, 농촌 마을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군은 한방·치매 예방 등 의료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등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비로 총 1억1천100만 원(국비 7천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군은 한방의료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3천500만 원)에 진천군은 공예체험 교실, 마을경관 조성, 벽화 그리기, 마을회관·경로당 수리(2천만 원) 사업 등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괴산군은 문화공연, 치매 예방 인지자극 프로그램, 공예체험 교실, 마을벽화 그리기, 마을회관·경로당 보수(3천만 원)가 음성군은 벽화 그리기, 노인낙상 안심마을 만들기, 재능나눔 마을 축제, 마을환경개선 교육 등(2천 600만 원)이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청주시, 증평·괴산·음성군의 4개 시·군에서 대학교, 직능단체 등과 연계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이 펼쳐져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문화·생활개선 등 다양한 복지 증진 혜택을 제공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단체·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농촌지역 재능나눔 활동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능·사회봉사단체, 대학교, 비영리단체 등의 재능기부 등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증평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박차

충주시, 음성군에 이어 증평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 인증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

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올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 함께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추진 조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후 아동권리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서 지난해 11월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 건립 시 고려사항, 아동친화도시 정책 수립 관련 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증평군의 18세 이하 아동은 6918명으로, 전체 인구 3만7487명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충북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처음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면 아동을 비롯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증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보은·건강한 군민... 보건의료계획 수립

치매·심뇌혈관·암 등 지속적 관리 실행계획

보은군이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보건의료계획을 담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의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보은군의회의 최종 보고후에 확정했다.

이번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구부분으로 보은군은 노인인구가 3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건강수준으로는 남자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를, 감기 실천율, 고혈압·당뇨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점차 나빠지고 있고 근력운동 실천율은 충북 및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점차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원인 1위로는 악성

신생물, 2위 뇌혈관질환, 3위 폐렴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 치매예방관리사업이 1위, 심뇌혈관질환사업이 2위, 암예방관리사업이 3위로 나타났다. 스포츠의 메카 보은군의 스포츠 시설을 적극 활용해 운동 실천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지원 방안 강화, 농한기 겨울철 경로당을 찾아 고혈압 당뇨관리교육과 건강프로그램 운영제공 등 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군 청소년정책, 전국 최고 인정 '대통령 표창'

참여·관리 증진... 건강한 성장 지원 노력 인정

옥천군의 청소년 정책이 전국 최고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에서 서울시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옥천군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업무 전담팀을 신설, 전담공무원 2명과 함께 상담사 등 17명을 배치하며 효과성 높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약 30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관내 16곳의 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행사'를 운영하고, 그

들의 참여와 관리 증진을 위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운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천군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업무 전담팀을 신설, 전담공무원 2명과 함께 상담사 등 17명을 배치하며 효과성 높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약 30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관내 16곳의 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물놀이행사'를 운영하고, 그

10월에는 옥천·영동·보은 등 남부3군 청소년들의 화합을 위해 '청소년 킷살대회'를 열어 건강한 정신과 신체 수련에 힘썼다. 청소년수련시설 3곳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고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높였으며, 매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을 추진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도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억여원을 들여 통학고통비를 지원 한 점도 이번 수상에 한몫했다.

'우리동네 뇌튼튼 교실'로 치매걱정 싹 잊으세요

괴산군 보건소, 농한기 맞아 '우리동네 뇌튼튼교실' 운영



괴산군 보건소가 농한기를 이용, 어르신들의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뇌튼튼 교실'을 오는 2월까지 운영한다. 4월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치매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 보건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농한기에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을 선정, 보건지소 치매사업 담당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격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치매사업 담당자가 마을을 방문, 프로그램 운영 전·후 결과 비교를 위한 치매선별검사(MMS-E)와 함께 기억력 감퇴평가 및 우울증 자가평가 설문지를 실시한다. 이어 각 읍·면별 15~20명으로 이뤄진 그룹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향상을 위

한 치매예방 뇌신경체조 총복판역치매센터의 워크북을 이용한 학습 교재 풀이, 집중력 및 ADL(일상생활에서의 동작·활동평가) 기능 증진을 위한 수공예활동, 공예 완성품에 대한 주제 나누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우리

동네 뇌튼튼 교실 운영을 통해 참가자의 만족도는 물론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점차 향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 보람이 매우 크다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기일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시작

충북협의회 · 충북하나센터 · 청주자생한방병원과 MOU 회원 직계존속 · 도 내 북한이탈주민 우대 혜택 등 포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와 충북하나센터(센터장 백운기)가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자생의료재단 청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15일 청주자생한방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속, 도 내 북한이탈주민 병원 이용 시 우대혜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북하나센터는 15일 청주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우성 병원장은 “재단 차원에서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크고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의료봉사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내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원보건소가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치매안심센터의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9억여원투입 지상 2층 규모... 가족카페 · 휴게실 등

청원보건소가 지난 12월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치매안심센터의 개소를 기념

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청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9억 8000여만 원을 들여 청원보건소 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다.

센터 내부는 교육 · 상담실, 검

진실, 사무실 등 업무공간 외에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 휴게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 등록, 1대1 사례관리,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방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교육 ·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식 개소를 통해 관련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혜련 청원보건소장은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치매통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시민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 '전국 최단기' 100도 달성

76억7천만원 모금... 1년전 동기보다 34% 증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모금이 23일 모금목표인 66억8천9백만원 돌파하여 10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시작됐지 65일 만이다.

“나눔으로 행복한 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기부불신 분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가운데 모금액이 동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년 용돈을 아껴 모금

을 모아 준 고사리손의 기부부터, 11억2천만원이라는 성금을 담은 SK하이닉스 등 많은 기업과 단체는 물론, 소행점포 및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따스한 손길을 전해와 14일 수은주가 90.1도가 지크게 올라갔다.

이후에도 충북지역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연이어지면서 모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100도가 달성되었다.

지난 희망2018나눔캠페인 총 모금액인 66억8천9백만원보다 9억8천여만원 증가된 상황이다.

이로써 충북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8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게 되었고, 광역시·도단위 전국 최초로 100도를 달성한 지역이 되었다.

충북모금회 이명식회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충북도민들의 마음이 사랑의 온도탑 100도 초과달 성으로 이어졌다. 기록적인 한파에 몸은 꽁꽁 얼어붙어도 이웃을 향한 마음은 활활 타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캠페인이 종료되는 1월 31일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운영

도내 돌봄종사자 대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을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북대카리타스노인요양원(원장 황지연) 소속 요양보호사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돌봄종사자가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작품완성 후 성취감과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돌봄종사자 A씨는 “공감하고 공감받는 유익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주관 및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시간이 되었다”며 “4회기라는 일정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쉽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협의회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돌봄 수행 업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종사자 및 기관(시설)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2)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함께 웃는 청주, 함께 행복한 복지"

청주복지재단, 지난 3일 '2019 사업계획' 발표 복지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 복지 DB 구축 등

청주복지재단은 3일 '함께 웃는 청주, 함께 행복한 복지'를 목표로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청주시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선제적 복지정책 개발 청주복지 DB구축 및 조사 · 평가 연구 책임경영 · 시민공감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 이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복지자원의 흐름을 한 곳에 담은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을 중심으로 자원공유를 더욱 활성화 하고, 청주시 외곽지역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의 복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학계와 복지현장 · 시의회 · 공무원

등을 총망라해 복지이슈 실천연구(풀로키움)를 지속적으로 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주시의 최신 복지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청주시 복지와 관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 개발 · 조사 · 평가, 민-관 수탁 연구에도 힘을 기울인다.

재단은 올 연구사업으로 청주시 커뮤니티케어 적용방안 연구, 청주시 복지관리지표 개발연구, 청주복지포럼 발간, 청주복지통계 발간, 청주시 대안적 빈곤지표 측정연구, 청주시 사회복지 중사자 인권실태 조사, 청주시 장애아 동 연구 등을 실시해 청주시 맞춤형 복지모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날 계획이다.

지난 해에 이어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공모사업도 추진된다. 실제로 적용가능한 청주시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도출되는 한편 지역 내 복지정책 연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해 지역사회의 변화요구 등에 따라 격변의 시간을 겪었다"며 "지역복지계의 요구를 수렴해 2019년에는 한 걸음 한걸음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Safe 충북"

충북 적십자사 Saving Lives, 응급처치 캠페인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지난 12월 22일 오송역 2층 대합실에서 '우리가 만드는 Safe 충북' 응급처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고하고, 도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캠페인은 청주응급처치법감사위원회(회장 최재봉) 주관으로 오송역 이용객(도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CPR(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김소생(가명 · 35)씨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충북 적십자사 관계자는 "오

늘 실시한 캠페인으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응급처치 캠페인은 2019년부터 매월 3째 주 토요일(10시~12시), 월 1회(2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12H)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를 통해 강습에 참여할 수 있다.

제천시건강가정센터 '아동돌봄' 3년 연속 우수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동돌봄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의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서비스 성과(만족도) 서비스 제공(실적,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확보 및 활동 참여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다섯 영역에서 성과가 측정됐다.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돌봄지원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세한 문의를 제천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43-645-9995)로 문의하면 된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1. 참여대상 - 충북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2. 사업기간 - 2018. 11. 1 ~ 2019. 8.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통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4. 프로그램별 안내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호스피스교육	미술치료	웃음치료	의사소통교육	안전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17명/4회기	30명/1회기	35명/1회기	40명/1회기	1그룹(10명)/9회기

5.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6. 지원 -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사회복지 · 보건분야

●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4대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며,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 의료비 부담 경감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중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 임신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체아 60만원, 단체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분야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50%('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p>보건복지부</p> <p>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1월(만 6세 미만 아동)</p>	<p>Before</p> <p>지급대상: 월평균 소득·재산 요건 해당 가구에 아동수당액 지급되었습니다.</p> <p>2019년 1월 기준 월평균 소득·재산 요건에 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p> <p>2019년부터는 국민 99%가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p> <p>2019년 1월 1일부터 소득·재산 요건 완화하여 국민 99%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1월 1일</p>
<p>보건복지부</p> <p>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p> <p>☐ 시행일 : 2019년 1월</p>	<p>Before</p> <p>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p> <p>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 13만 명</p> <p>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p> <p>기초생활보장 대상 13만 명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1월 1일</p>
<p>보건복지부</p> <p>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p> <p>☐ 시행일 : 2019년 4월(장정)</p>	<p>Before</p> <p>월 최대 20만원 (소득하위 70%)</p> <p>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의 월 최대 30만원에 인상하여 지급을 확대합니다.</p> <p>☐ 시행일 : 2019년 4월(장정)</p>
<p>여성가족부</p> <p>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상반기</p>	<p>Before</p> <p>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발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p> <p>2019년 상반기에는 위기 청소년 15만여명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p> <p>☐ 시행일 : 2019년 상반기</p>
<p>여성가족부</p> <p>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1월</p>	<p>Before</p> <p>경력단절 예방서비스</p> <p>2019년 1월부터는 15만여명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p> <p>☐ 시행일 : 2019년 1월</p>
<p>교육부</p> <p>초·중·고 학생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p> <p>☐ 시행일 : 2019년 3월</p>	<p>Before</p> <p>학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p> <p>2019년부터는 초·중·고 학생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p> <p>☐ 시행일 : 2019년 3월</p>
<p>고용노동부</p> <p>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p> <p>☐ 시행일 : 2019년 3월(일시 시작)</p>	<p>Before</p> <p>2019년부터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p> <p>☐ 시행일 : 2019년 3월(일시 시작)</p>

20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교생은 연간 203천원, 중·고등학교생은 290천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한다.

여성·육아·보육분야

●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0~2세) 단가가 20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이다.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가 결정되었다.

1월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 지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 72%이하)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1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특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 500만원 내외)를 지원 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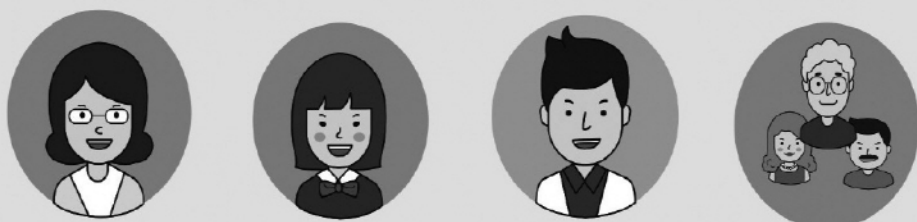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 내로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30개에서 138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 전문요원'은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개소 신규 지원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률개정

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정이 되었고, 2018. 12. 18.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9. 6. 2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정지 및 취소 기준이 엄격해졌는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8%로 과거 0.10%에서 강화되었으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해와 달, 이·미용 봉사활동 진행



해와 달 봉사단 김종숙 단장은 '미용기술기능을 보유한 봉사자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또는 이메일(cpsww@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KT&G 복지재단] 2019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연중상시 진행매월(1월~20일)
신청대상: 아동·청소년사업 수행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18세)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신청발표: 매월 마지막주 발표
신청방법: 온라인 사연신청

[KT&G 복지재단] 2019년 회귀·난치성의로복지 원(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연중상시 진행매월(1월~20일)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회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질환군으로 확인 받은자에 한하여 의료비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의 저소득(차상위,수급,일반저소득) 성인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보장구 구입비·약제비 등(단, 간병비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사연신청

[푸르메재단] 2019 SPC 1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2019.03 ~ 12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인 및 청소년(만 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포함)
지원내용: 수술비, 주사치료비, 치료과 치료비, 검사비 등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2019.02.14

- 심사 및 선정발표: 2019 2월 중 예정
지원금 지급: 종결 보고 이후 2주 이내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푸르메재단] 2019 SPC 장애인,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2019.05 ~ 12
지원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만 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현금 지원)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한국의료복지재단] 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지원기간: 2019.01.03. ~ 12.31
지원기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9,000원 이하
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

[여성사회복지재단] 함께 독서 도서 무료 보급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기간: 수시 가능
배출관련: 택배비 본인 부담

[아산사회복지재단] 2019년도 사회복지사업 지원 안내

- 지원부분 및 지원한도
① 중점지원사업 -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1억원, 10개소)
② 취약계층 자립(3천만원, 15개소)
③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3천만원, 15개소)
④ 놓여촌 노인 복지·건강관리 통합지원(2천만원, 15개소)
⑤ SOS 복지지원(위기 상황에 따라 상이)
사업기간: SOS 복지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 및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19.01.14~ 02.22 / 6주간
지원대상 기관유형: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기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자원 봉사자 모집

- 중학생 학습지도
장난감도서관 정리
경로식당 주방보조 및 배식봉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활동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청소년(아동부/중등부) 학습지원
장난감도서관 정리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청소년(아동부/중등부) 학습지원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대상: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지급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복/지/만/평 지팡이. 이창신 www.bokmani.com. 지팡이는 누군가에게 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눈이 됩니다. 복지란 이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